

# e-KIET 산업경제정보

10 ,

[ ]

10 750 , 85%가

가 가 .

10 가

- , M&A 가  
- , M&A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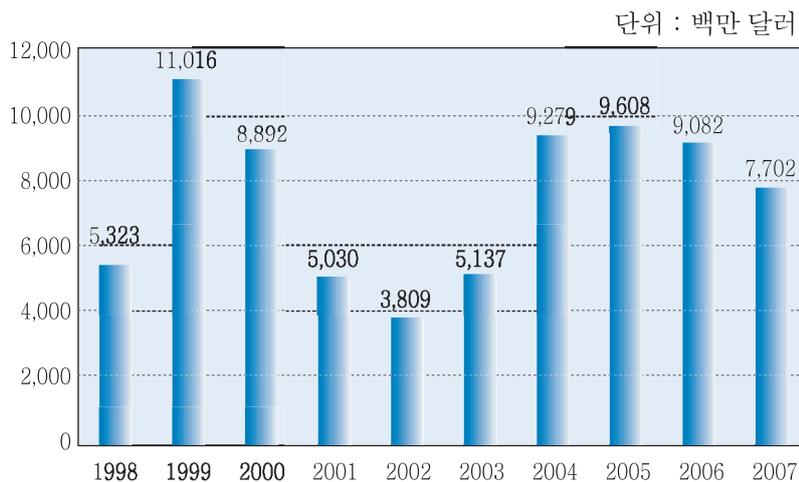
- M&A 가

가 .  
-  
-  
-  
- ) ( ) ( )  
- M&A

□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는 523억 달러 증가

-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이하 외국인투자)는 도착기준으로 총 749억 달러가 유입되었음.<sup>1)</sup>
  - 투자유입 규모가 가장 컸던 1999년에는 110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그 후 2001년과 2003년 사이에는 38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2004년부터 90억 달러 수준으로 다시 증가
  - 2007년의 투자유입액은 77억 달러로 10년간의 평균(75억 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2005년 이후 연속 감소세라는 점에서 투자유입 추이 변화를 주시할 필요
- 한편, 투자회수 추이를 살펴보면 10년간 총 226억 달러가 회수되었음.
  - 회수는 지분 전체 혹은 일부를 매각하여 해외로 송금하거나 차관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2004년까지는 10억 달러 내외에서 등락하였으나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양상임.

<그림 1>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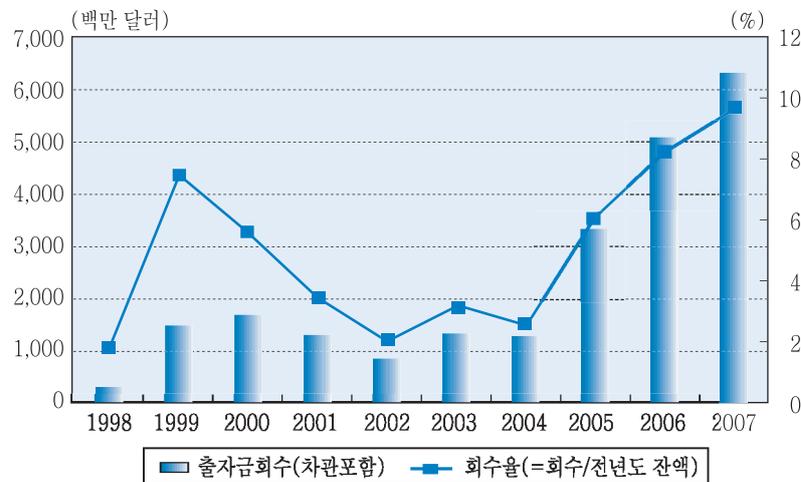


자료 : Invest KOREA.

주 : 리타워테크놀로지 제외(2000년 13억 8,000만 달러 도착).

1) 이하 모든 수치는 도착기준 통계임.

〈그림 2〉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회수 추이



－ 회수율(=회수액이 전년도 투자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을 살펴보면, 1999년에 7.5%로 상승한 후 감소하다가 2006년 8.3%, 2007년 9.7%로 다시 크게 상승

－ 회수액 규모의 급증은 외견상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몇몇 기업의 대규모 회수에 따른 국지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sup>2)</sup>

○ 종합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외국인투자는 749억 달러 유입, 226억 달러 회수되어 순 유입액은 523억 달러에 달함.

－ 그 결과 외국인투자 잔액은 1997년 142억 달러에서 2007년 665억 달러<sup>3)</sup>로 4.7배 증가했으며, GDP 대비 외국인투자 잔액 비율도 1997년 2.7%에서 2007년 6.9%로 2.5배 상승

2) 투자회수 규모가 1억 달러 미만인 기업들의 회수 총액은 2005년 이후에도 별 변동이 없으나, 1억 달러 이상 회수기업의 회수 규모는 크게 증가함. 1억 달러 이상 회수기업은 2005년 5개사, 2006년 7개사, 2007년 6개사 등으로 극소수이지만, 이들이 전체 회수 규모의 증가에 미친 영향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윤중, “최근의 외국인투자 출자회수 증가추이 요인 검토”, 2008. 4(내부자료) 참조.

3) 이 수치는 장부가(book value)로서 현재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님. 한국은행이 추정한 2007년 말 현재 외국인투자 현재가치(present value)가 1,196억 달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부가는 현재가치의 55%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음. 한국은행, “2007년 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2008. 5. 14 참조.

< 1> 10

		1997(A)	2007(B)	(B/A)
		14,152	66,478	4.7
/GDP	%	2.7	6.9	2.5
100		1,264	3,463	2.7

: Invest KORE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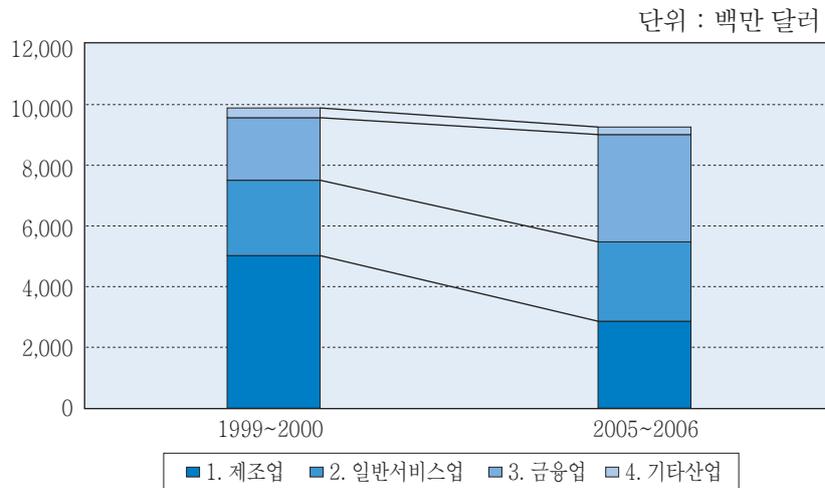
( ) , 100  
 1997 1,264 2007 3,463 가 가  
 , 1 129 가  
 - , ,  
 , 4)  
 - , , 가

産 가 가 ,

1999~2000 2005~2006  
 , .  
 - < 3> 1 51%,  
 25%, 21% , 2 31%,  
 28%, 38% .

4) \_\_\_\_\_ 「2007  
 . ( , ) .

〈그림 3〉 외국인투자 유입 절정기의 투자유입 주도업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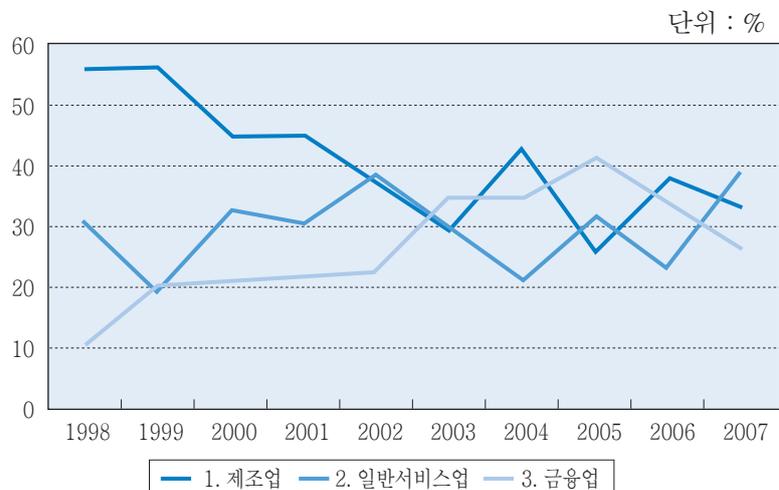
주 : 기타산업은 전기·가스, 건설업, 농림어업, 광업을 합한 것임.

○ 이처럼 주도산업이 바뀌면서 제조업, 금융업, 일반서비스업 등 3개 산업이 모두 30%대로 수렴하는 평준화 경향이 나타남.

– 이 현상은 한편으로 우리 산업의 투자유치 역량이 금융업과 일반서비스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전 산업에서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을 모색할 필요

– 다른 한편으로, 이 현상은 제조업의 투자유치 역량 저하를 반영하는데, 외

〈그림 4〉 외국인투자의 산업별 구성비 변화 추이



30%  
가

가

1 2004  
(28.5% 24.2%)  
(11.7% 16.0%)

3 8.7%, 9.6%

10 가

10

< 2 >

: %

	(A)					(B/A)
		1998~2000	2001~2003	2004	2005~2007 (B)	
	30.1	28.5	25.0	54.4	24.2	0.81
	12.6	11.7	13.8	6.6	16.0	1.28
	11.5	10.7	22.3	4.1	9.5	0.83
	8.0	9.0	6.4	5.1	8.7	1.09
	7.3	8.3	5.3	1.5	9.6	1.32
	6.8	8.2	11.6	2.1	3.7	0.55
	18.1	17.2	17.9	20.2	18.4	1.02
	14.4	22.8	17.4	2.1	8.9	0.62
	13.7	20.7	17.6	27.7	2.4	0.18
	11.1	11.3	7.4	5.1	14.5	1.30
	10.7	5.0	11.4	7.5	15.8	1.47
	9.3	13.3	7.7	6.9	7.6	0.82
	5.1	1.6	1.4	7.7	9.3	1.83

가

가

가

가

10 749 15% 115 85% 634

5) ,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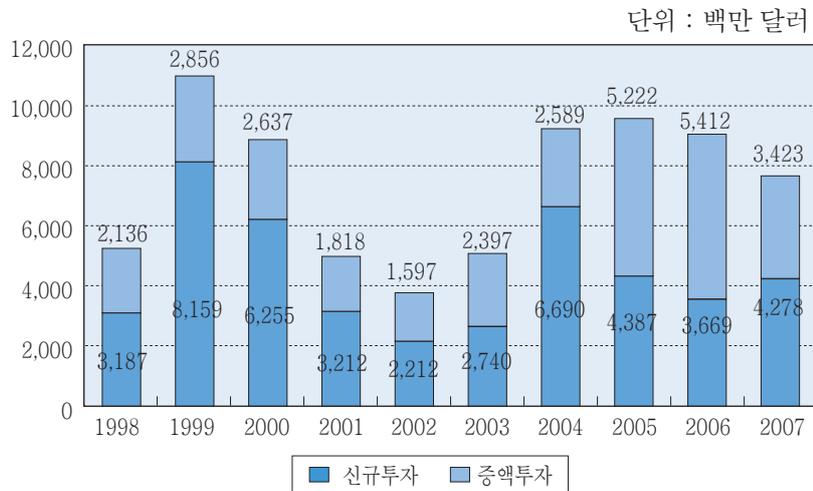
< 3> 10

	( )			(%)		
1998	44,737	18,675	63,412	59.7 (70.5)	24.9 (29.5)	84.7 (100.0)
1998	54	11,413	11,467	0.1	15.2	15.3
	44,791	30,088	74,878	59.8	40.2	100.0

5) 1

〈그림 5〉

신규투자자와 증액투자자 변화 추이



이 신규투자자 60%, 증액투자자 40%로 나타나며, 1998년 이후 신규 진출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면 신규투자자 71%, 증액투자자 29%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5〉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직후에는 신규투자자가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증액투자자가 주도하는 양상임.

- 투자유입액이 가장 많았던 1999년의 경우 3/4 정도가 신규투자자에 의한 것이며, 2001~2003년 기간에 투자유입이 부진했던 이유도 신규투자자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임.
- 투자유입이 다시 증가한 2004년 이후에는 2004년을 제외하고<sup>6)</sup> 증액투자자가 우세를 나타냄.
- 2007년에는 신규투자자가 다시 우세를 나타내는데, 신규투자 증가분이 증액투자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체 투자유입액은 감소
- 이에 따라, 향후 투자유입액 추가 감소를 저지하고 더 나아가 증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액투자자의 회복에 힘쓰면서 다른 한편으로 신규투자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6) 2004년에는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 삼성과 소니가 합작한 S-LCD의 신설 등 소수의 대규모 신규투자의 영향으로 신규투자자가 급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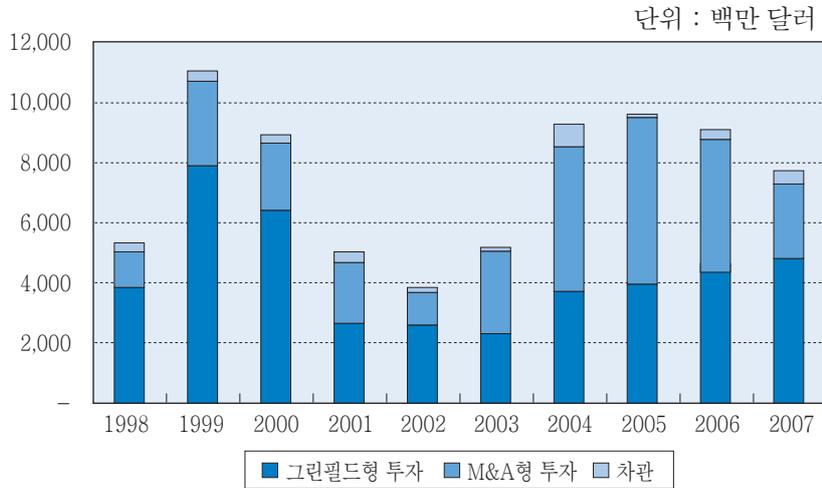
10  
 M&A 39%, 4% , 7) 57%,  
 20% 가 M&A  
 - M&A 60%  
 - 54%  
 가  
 - , M&A 20 가 2004  
 가

< 4> 10 M&A

	( )				(%)		
		M&A				M&A	
	26,313	17,185	1,293	44,791	58.7	38.4	2.9
	16,361	11,843	1,884	30,088	54.4	39.4	6.3
	42,673	29,028	3,177	74,878	57.0	38.8	4.2

7) 가 가 , 가가 ,  
 가  
 2003 ,  
 M&A  
 M&A 가

〈그림 6〉 그린필드형 투자와 M&A형 투자의 변화 추이



-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M&A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그린필드 투자는 M&A 투자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 투자유입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임.
- 양자의 결정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M&A 투자의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 □ 제조업, 일반서비스업, 금융업 간에는 투자유입 패턴 차이 존재

- 앞에서 살펴본 신규투자자와 증액투자자, 그린필드형 투자와 M&A형 투자를 조합하여 각 산업의 투자유입 패턴을 분석해보면, 제조업, 일반서비스업, 금융업 간에는 투자유입 패턴에 차이가 나타남.
  - 먼저 각 산업의 투자유입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신규 그린필드 투자가 3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M&A 투자와 증액 그린필드 투자가 21%로 비슷한 수준이며, 증액 M&A 투자와 차관이 각각 13%와 7%를 차지함. 차관의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음.
  - 일반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비슷하게 신규 그린필드 투자가 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증액 그린필드 투자가 28%로서 신규 M&A 투자(19%)

< 5>

: %

	1.	2.	3.	4.	
	38.7	39.7	26.2	24.3	35.1
M&A	20.7	19.2	26.6	59.0	23.0
	20.6	27.5	18.8	12.9	21.8
M&A	13.1	10.3	26.9	0.3	15.8
	6.8	3.3	1.5	3.6	4.2
	100.0	100.0	100.0	100.0	100.0
( )	30,647	21,484	20,782	1,965	74,878

: < 4>

M&A 10%

3%

M&A 가 27% 1

M&A , 19% 가

M&A

가

가 M&A

가 ,

M&A 가

부

41.3% , M&A

2,318 , M&A  
 - 2,318 1,719  
 , M&A 599 .  
 - 275 , M&A 343  
 , M&A (5,700 )  
 (1,600 ) 3.6 .  
 , 41.3%,  
 45.1%, M&A 38.3% .  
 - 1 가 가  
 , 40% .

< 6>

M&A

: , %

		M&A		
	18,203	23,731	41,935	67.9
	18,013	6,859	24,872	40.3
M&A	191	16,872	17,063	27.6
	8,209	9,094	17,302	28.0
	4,869	3,854	8,723	14.1
M&A	3,340	5,240	8,580	13.9
	1,082	1,434	2,516	4.1
	27,494	34,259	61,753	100.0
< >				
	45.1	38.3	41.3	
		63.5		

: M&A . M&A  
 M&A .

M&A 가 107 ( ,  
 ) M&A 63.5% .  
 - 64% 69 1  
 39 1 .  
 - M&A

■

M&A

, < 7> (71.5%),  
 (39.9%), (26.1%) .  
 - 가 , M&A  
 (17.7%) .  
 - M&A  
 , M&A 가  
 , 79%, 66%, 51% 가

< 7>

: %

			M&A
	26.1	37.5	17.7
	39.9	37.1	43.1
	71.5	70.4	72.2
	14.0	46.4	9.2
	41.3	45.1	38.3

< 8 >

M&A

: %

	M&A 가		
	79.1	81.7	18.3
	66.4	53.2	46.8
	50.5	42.7	57.3
	31.7	65.1	34.9
	63.5	64.0	36.0

- M&A 가

- , M&A M&A 가

- M&A M&A

- , M&A 가

■

10

- , 가 ,

- , 3 30%

가

- , 가

가

- , , ,

가

M&A

- , , M&A

M&A

- 10

-

· , 2000

Veolia

가

-

, ,

- M&A

M&A

M&A 가

M&A가

가 가

( jang@kiet.re.kr )  
(02-3299-3290)

[www.kiet.re.kr](http://www.kiet.re.kr)